

■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

그것과

가솔린 계량기

“
급유 호수를 천장에
다는 것은 어떨까요?
계량기도
천장에 달고...
”

현재는 아이디어 시대이다.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기업의 명암이 확연하게 갈라지곤 한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의 틈바구니를 헤치고 성장해 간다. 이런 살벌한 현실 속에서 꾸준한 기술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급성장한 기업이 곳곳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소개하는 가솔린 계량기 제조업체인 도쿄 다츠노 사이다. 이 회사의 사장 다츠노 히요시는 경영의 철칙이 인재와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곤 하였다.

1958년의 어느날이었다. 여행에서 막 돌아온 다츠노 히요시는 부산하게 회사 안을 돌아다녔다.

“이 봐. 간부들 모두 회의장에 모이라고 해.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까.”

다츠노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면 으레 아이디어 회의가 열리곤 했다. 그는 여행지에서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해와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웬지 더 특별하게 흥분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갑자기 모이라고 한 것은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해서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회사의 중요 간부, 기술 책임자, 평사원들로, 모두 각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츠노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주유소에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력 등 모든 부분을 줄이자고 하는 겁니까? 또 이것은 새로운 가솔린 계량기 개발로 가능한 일이고요.”

“맞아요. 내가 여행 도중 들른 주유소에서는 모두 그것을 호소해 왔어요. 요즘같이 가솔린 소비량이 급증할 때에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인력이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다츠노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의견 가운데 아주 엉뚱한 것들도 많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사실,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필요한 것은 노즐과 계량기뿐이잖아.”

“그래 맞아. 지금처럼 급유 스탠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기단이나 펌프 스탠드가 없는 급유 계량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급유 호스를 천장에 다는 것은 어떨까요? 계량기도 천장에 달고……. 그러면 공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벽이나 지하에서 곧바로 급유 호스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계량기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츠노는 사원들의 모든 의견을 점검하고 실용성을 타진해 보았다. 많은 의견이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착상들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무형 스탠드에 대한 필요성만 겨우 인식되고 있는 단계여서 이에 대한 선례나 참고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다츠노와 그의 프로젝트 팀은 완전 미개척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논스페이스(non-space)형 계량기는 개발 초기부터 계속 어려움에 부딪혔다. 특히 소방법 규

정에 맞는 안전성 확보가 제일 힘겨운 일이었다.

이런 어려움에 접할 때마다 다츠노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1964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결실을 맺게 되는데, 개발 시작부터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 새로운 계량기의 출현은 세상을 무척 놀라게 했다. 특히 주유업계에서 보인 반응은 다츠노 자신도 놀랄 정도로 대단하였다.

이로써 도쿄 다츠노 사는 일본 가솔린 계량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츠노는 이 계량기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7년 일본석유학회로부터 기술진보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1969년에는 일본발명협회 전국 발명표창을 받았다. 이것은 다츠노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 전체에게 주어진 영예였다.

이후 각 기업체는 다츠노 사의 회의방식을 빌려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신제품 개발이나 홍보전략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아이디어는 하나의 생산활동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王>

**한발앞선 상품출원
국제경쟁 앞서간다**